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를 위하여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국청년 해외 봉사단—

한 영 태*

- I. 글을 시작하며
- II. 청소년봉사단 현황
- III. 청년봉사단 유형별 활동 사례
- IV. 타국의 해외봉사활동 현황
- V. 맺는말

I. 글을 시작하며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이념의 벽을 허물고 “세계는 한가족”이라는 대전제 아래 인류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종속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호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족상잔과 분단의 질곡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통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한민족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이러한 우리의 발전은 주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동시에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외적으로는 한국청년의 실천적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정립시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국가관의 함양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2000년대의 새로운 청년상을 제시하고자 1989년 한국청년해외봉사단(이하 청년봉사단)이 설립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UNESCO)는 동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그동안 축적된 청소년 활동의 경험과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 Organization)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한편 우리보다 먼저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는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사업을 추구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었다.

이윽고 사업 원년인 1990년에는 초창기의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담당 스템 및 1기

* 한국국제협력단 인력협력부 인력협력 2과

봉사단원들은 한국최초의 청년봉사단이라는 설레임과 막중한 책임감 아래 동남아시아 4개국에 그 장대한 출범을 하였다. 이어 1991년에는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각종 대외협력사업을 전담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축적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39명의 능률한 젊은이들을 1기 기파견 4개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에 파견하였으며 이러한 내실을 주축으로 올해는 약 60여명을 파견예정으로 그 예비작업을 하고 있다.

본고는 청년봉사단 홍보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사업이 초장기이니만큼 활동현장 보고는 어차피 1기 단원이 귀국하는 9월을 전후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봉사단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청년이니만큼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한 현재의 청소년들이 몇 년 후 청년봉사단의 주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에 다소 위안을 삼고자 한다.

II. 청년봉사단 현황

1. 파견현황

한국청년해외봉사단 활동은 한국의 청년들로 하여금 '나눔과 섬김'의 봉사정신으로 세계의 모든 인류와 더불어 일하게 함으로써 평화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특정협력 대상 지역과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며 인류복지 증진을 위한 실천적 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한 청년의 참여의식 고취에 기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숭고한 이념을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인도네시아, 피지, 파푸아뉴기니, 태국의 7개국에서 몸소 실천하

〈표 1〉 파견국별 현황

'92.5 현재

파견국	1기	2기	계
스리랑카	15(3)	7(5)	22(8)
네팔	11(6)	4(2)	15(8)
필리핀	7(1)	3(2)	10(3)
인도네시아	6(3)	5(1)	11(4)
피지		4(2)	4(2)
파푸아뉴기니		5	5
태국		7(6)	7(6)
계	39(13)	35(18)	74(31)

※() 여자단원

고 있는 청년봉사단원들은 모두 74명이다. (표 1 참조)

이들 74명의 단원들은 표 2와 같이 컴퓨터, 축산, 농업, 간호, 체육, 한국어교육, 지역사회개발 등 30여개의 직종에서 자신들이 지닌 경험과 지식을 현지인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태권도지도, 의료순회 활동 등 대민활동도 겸하고 있다. 나아가 봉사단원들은 타성에 젖은 현지인들에게 근면, 자조의 정신을 부돈아 그들로 하여금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며 정직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현지인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지속시켜 상호이해 증진의 밑거름을 형성하는 등 민간의교사절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맡은 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때로는 낯선 이국인에 대한 현지인들의 배타적인 의사 표현이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므로 자금자원 등으로 도와주면 되지 왜 낯선 이국 땅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현지인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단원들은 그들을 설득시키면서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표 2> 파견분야

분	야	직	종
기술	협력	컴퓨터구조, 전자, 자동차정비, 농기계수리, 용접, 건축, 수공예, 토목, 요업, 목공, 미용, 봉제	
농·축·수산업		농학, 농경제, 식품가공, 병충해방제, 원예, 양봉, 잡사, 작물재배, 축산, 수산	
교육		한국어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시청각교육	
보건	의료	의사, 간호, 물리치료, 보건, 영양사, 수질검사	
기타		코디네이터, 지역사회개발, 중소기업관리	

2. 단원 선발 및 훈련

(1) 봉사단원 모집 및 선발

봉사단원의 모집은 주요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지하철역, 대학, 전문대학의 각종학교, 각급 행정기관에 포스터를 부착하여 공개 모집된다. 이외 방송사 등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동 사업의 홍보형식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봉사단원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조건은 첫째는 만 20세이상, 35세 미만의 신체건강한 미혼 남·녀이어야 하며, 둘째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되어야 하며, 셋째는 파견국 정부에서 요청하는 분야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넷째는 공무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섯째는 해외봉사 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선발은 모두 세 차례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차는 서류전형, 2차는 영어, 논문, 적성검사의 필기시험, 3차는 면접 및 신체검사를 하게 된

다. 이러한 전형을 통해서 선발된 예비단원들은 파견을 전제로 한 3개월의 국내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의 각종 교육성적을 토대로 각 해당국에 파견될 단원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참고로 '92년도 제3기 단원의 경우 총 505명이 지원하여 60명의 예비단원들이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전원 합숙에 의한 국내훈련을 받고 있다.

이들 지원자들의 성별 분포도에 있어서는 남자가 201명으로 전체의 40%, 여자가 304명으로 전체의 60%를 구성하고 있는바, 이를 보아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오히려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청년봉사단의 일반적 자격조건이 만 20세에서 35세까지의 나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게 하여 뜻있는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는바, 평균연령이 25.4세로 나타나 나이가 들면서 봉사에 대한 의지와 용기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만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지원자가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25세 이상의 지원자가 60%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봉사에 대한 인식이 널리 형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들 지원자들의 학력별 분포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대, 대졸 및 대학원졸이 전체의 90.5%으로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 이하가 9.5% 차지하고 있다. 지원자들의 직업별 현황은 무척 다양하게 나타난다. 총 505명의 지원자 중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또는 취업준비 중인 경우도 45.5%를 나타내고 있다. 현직에 근무하는 경

우 그 직업은 매우 다양하여 회사원, 학생, 학원강사, 간호사, 공무원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번 지원서 접수 중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한국어 교육, 유아교육, 시청각교육, 중소기업관리, 보건분야, 영양사, 수질검사, 지역사회개발분야 등이 평균 10 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사 및 양봉의 경우는 지원자가 1명도 없어 극히 대조적인 현상을 보임에 따라 파견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으며, 잡사 및 수산의 경우도 농어촌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음을 암시라도 하듯이 극소수의 인원만이 지원하였다.

(2) 국내훈련

모집과정에서 선발된 예비단원들은 정식 봉사단원으로 파견되기 전에 앞서 국제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에 따라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내훈련은 단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활동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능력,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책임감,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성, 그리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건전한 청년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국내훈련의 내용은 표3 과 같이 기본 소양훈련, 언어훈련, 비교문화훈련, 신체적응훈련, 실무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봉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고 동시에 나누고 섬기는 예비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훈련은 이제까지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단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학습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단원들의 부단한 자기계발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3) 현지훈련

소정의 국내훈련을 성실히 이수하고 청년봉사단으로 확정된 단원들은 각 파견대상국의 사정에 따라 각 파견국별로 출국하여, 근무지로 부임하기에 앞서 1개월간 현지훈련을 받게 된다. 이들은 국내훈련기간 중 학습한 현지어 실

<표 3>

국내훈련 교과과정

내 용	기 본 방 향	내 용	기 본 방 향
소 양 훈 련	한국청년봉사단 사업개요 현대사회와 청년의 봉사 청년의 실천적 참여 국제협력의 이해	신 체 적 응 훈 련	국기훈련 선택훈련 위생과 질병예방 구급법
언 어 훈 련	영어 현지어	실 무 훈 련	지역연구 사회조사방법
비교문화훈련	문화이론 한국문화의 이해 생활적응 훈련		사례연구 전이기술훈련 OJT훈련

력을 토대로 현지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능력 배양 및 현지문화와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지문화이해, 실생활훈련 등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소속기관 및 타국 봉사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사정을 파악하며, 현지인 가정에 민박을 실시하여 현지문화와 풍습을 실질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3. 단원에 대한 대우 및 활동지원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비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한편 활동과 관련한 물품이 지원된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보수로 일해야 되지만, 협력단은 그러한 활동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경비를 지급하는 한편 물품지원을 하여 봉사활동을 돕고 있다.

1) 국내훈련 기간 중

- ① 국내훈련수당 매월 지급
- ② 훈련 중의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2) 파견기간 중

- ① 각 파견국의 물가수준에 의거 매월 현지생활비 지급
- ② 파견 후 1회에 한하여 현지 정착금 지급
- ③ 봉사활동 기간 중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해외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 ④ 봉사활동 기간 중의 귀국 후 정착을 위한 국내적립금 매월 적립

3) 기타 활동지원

- ① 단원이나 단원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및 기자재 지원

- ② 단원활동과 관련한 정보 및 잡지 등을 송부
- ③ 정기적인 건강진단 및 현지지도
- ④ 귀국 후 관련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협력기관과의 협의
- ⑤ 봉사단 활동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협력기관과의 협조를 긴밀히 하고, 관련인사와의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초청프로그램 실시
- ⑥ 귀국후 단원 OB회 조직 지원

이외에 단원들은 국내훈련기간의 숙식비, 피복비뿐만 아니라 2년 동안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까지 왕복항공료 등 제반 경비를 무료로 제공받게 되며, 이러한 제경비는 모두 국고에서 충당된다.

4. 파견절차

청년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파견된다.

(1) 청년봉사단 안내

한국국제협력단은 파견가능 국가에 주재한 한국공관을 통하여 그 국가와 관련기관에 동사업을 홍보하고 청년봉사단 수요를 조사

(2) 파견국의 요청

청년봉사단원을 요청하는 국가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공관을 통해 협력단에 제출하고 자국내의 관련기관과 요청에 따른 제반 사항을 협의

(3) 파견을 위한 협정체결

봉사단 파견을 위해 파견국 관계기관과 협정 체결

(4) 파견분야 및 인원 결정

협력단은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분야와 인원을 결정하고 파견국과의 협의를 시작(파견 지역은 파견국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파견인원수 내에서 봉사단원 지원자의 희망을 고려할 수 있음)

(5) 봉사단원 모집·선발

자격을 갖춘 봉사단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와 포스터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봉사단원을 모집·선발

(6) 봉사단원 국내훈련

선발된 봉사단원은 파견 전에 3개월의 국내훈련(합숙)을 실시하고, 국내훈련평가에 의하여 최종 파견자 선발

(7) 해당국 통보

협력단은 최종 파견자를 해당국에 통보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장기비자 및 제반 협력사항 요청

(8) 현지훈련

단원은 현지활동 지역에 배치되기 전에 1개월간 현지훈련 실시하며, 현지훈련 동안 재외국민등록, 봉사단원 등록등의 절차를 완료함.

(9) 봉사활동 시작

현지훈련을 마친 단원은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봉사활동 시작

III. 청년봉사단 유형별 활동 사례

현지에서 1개월간의 적응훈련을 마친 단원들은 곧 소속기관으로 배치되어 본격적인 2년간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체로 단원들은 1개의 소속기관에 1명~2명 정도 파견되는바 현지에서 적응도 혼자서 꾸려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지어를 포함한 현지문화의 이해속도를 배가시켜 그만큼 빨리 현지에 적응해 나가는 첨경이기도 하다. 단원들이 개발도상국에서 행하는 봉사활동은 파견분야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 활동형태에 따라 촌락형, 교실형, 현장지도형, 사무실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촌락형

촌락형은 지역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서 농촌사회에 용화되어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활동등을 전개하는 유형인데, 농업분야 및 지역사회개발분야의 단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단원들은 무한한 자원에 비해 절대부족인 식량의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늘, 버섯 등 특용작물재배, 관개사업, 양어사업 등을 주민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 농촌활동의 경우

파푸아뉴기니의 오지에서 농업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성백주 단원(33세)은 국내에서의 농촌지도소 경력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에게 벼농사 재배기술과 특용작물 재배기술을 전수하여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힘쓰는 한편 농가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그가 파견된 Bereina 지

역은 전근대적인 시대의 생활에서 점진적 사회 변혁 없이 20세기의 문명이 밀려들며 따라 버 농사의 작부체계가 전혀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들을 지도하느라 초창기에는 무척 애를 먹었다. 농약회석이나 병충해 예방은 팔할 것도 없이 심지어 비료도 뿌릴 줄 몰라 한 옹큼씩 던지는 현지인들에게 농약회석을 위해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쳐야 했다.

그는 “내가 떠나고 난 뒤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 여간 힘든 것이 아니네요”하면서도 비료살포시범, 직파방법 등을 실시하여 ha당 생산량을 높이는 한편 대민의료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2) 소득증대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선정 단원은 열악한 현지사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주민 계도사업, 가족계획 홍보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에 힘쓰는 한편, 국내에서의 사회 복지활동의 경험을 살려 Project사업을 추진하여 그들에게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조, 근면의 정신을 북돋아주고 있다. 신선정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Sukabumi 지역은 연간 주민소득이 300,000Rp(\$ 150)에 불과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현저히 낮은 형편이다.

그녀는 이의 원인을 산간지대에 적합한 소득작물의 미생산 및 소득증대 의욕부족이라 판단하여 지역유지들을 설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즉 그녀는 마을 청년 중 실업자 5명을 선정, 민물고기 양식과 버섯재배를 위하여 장소계약, 위탁교육, 연구소 방문 등의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올해초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결실은 지역주민들에게 자립고취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정부에서도 그 성과를 높이 사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수확한 버섯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의 미비, 버섯판매 수송용 차량 및 판매처 확보 등의 애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3) 지역사회개발의 경우

스리랑카에서 지역사회개발분야로 활동 중인 김덕주 단원은 마라호야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버려진 사찰에 쌓인 돌덩이와 모래를 등짐으로 져나르는 각고의 노력 끝에 현지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개설하였으며, 처음 자신을 동키호테로 바라보던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여 3개년 마을개발계획을 추진시켜 마을회관 건립에 힘쏟고 있다. 그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땅의 형제들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가난을 물리치기 위하여 저수지를 새로 파고, 관개시설을 만들고 양어장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그는 외국인 자원봉사자 현지어(싱할라) 웅변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하여 우리 봉사단원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그의 이러한 쾌거는 타국 봉사자들이 현지어를 습득하지 못하여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 및 친숙에 애로를 느껴 실패한 사례가 많음을 상기할 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며, 현지어의 빠른 습득이 현지문화충격을 최소화하는 첩경임과 동시에 현지인과 일체감 형성의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4) 축산의 경우

유라경 단원은 피지의 Naboro 교도소 내 부

속 농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개, 돼지, 닭 등 가축을 사육하여 시민에게 일반 시중가격보다 값싸게 공급하는 동시에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Naboro 교도소에서 유라경 단원은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오늘도 축사에서 돼지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

파견 후, 그는 교도소내의 축사가 각 돈방으로의 돼지의 이동불편, 시설의 노후, 전반적인 위생상태의 불결로 인하여 돼지의 질병 발생이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윽고 교도관들을 설득하여 모든 축사시설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가축 사양 기술의 보급, 기본적인 질병진단 및 치료를 위한 교재를 작성, 교도소 내 축산담당 교도관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의 출소 전 재활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다.

그는 이 작업이 완료되면, 봉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도소 주변지역 마을 내 가축사육 농가에 대하여 사양기술 자문 및 질병치료 무료 봉사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2. 교실형

교실형은 말 그대로 직업훈련소와 각종학교 등에서 청소년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습, 지도하는 유형이다.

컴퓨터, 자동차정비, 전자, 목공 등의 기술 협력 분야 및 한국어교육, 유아교육 등 교육분야가 이에 해당 된다. 이들은 자신의 활동분야와 관련 보통 5~6개월의 기간으로 된 한학기 수업의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타국 봉사자들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자신의 교수법에 맞게 강의안을 작성한 후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1) 컴퓨터교육의 경우

스리랑카의 National Youth Services Council에 파견되어 computer hardware section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철 단원은 6개월 과정의 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Counterpart와 단둘뿐인 강의실을 묵묵히 지키면서 예의 큰눈으로 배움을 갈구하고 있는 현지 청소년들에게 현지어와 영어를 섞어 가면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 주고 있다.

지난 학기에서는 14명의 졸업예정자 중에서 자신의 말은 2명이 낙제를 하여 자신의 강의 잘못이라 생각하여 한 때 소심하기도 하였으나 가끔씩 졸업한 학생들이 직장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오거나 거리에서 마주칠 때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지나간 1년의 세월을 결코 후회스럽지 않게 보냈다고 자임하는 그는 그동안 수업관계로 전혀 신경쓰지 못했던 지역개발에도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동네에 있는 교회에 주말어린이 컴퓨터 교실을 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비록 컴퓨터가 1대밖에 없어 이동시 매우 불편하지만 그는 이를 통하여 현지인들이 컴퓨터를 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한국어교육의 경우

류용해 단원은 태국의 Nakhorn Pathom Teachers College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가, 나, 다, 라... 등 한글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다.

낱말카드와 각종 교재를 이용하여 한글의 자음, 모음을 숙지시키고 그것을 통해 초보적인 의사표현으로 한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서울을

림픽 등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 비디오 테이프도 상영하여 실질적인 한국어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

강의 초기 한국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에 의해 호기심으로 강의장을 드나들던 학생들도 그녀가 흥미제공 등 동기부여를 해줌에 따라 이제는 서서히 편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국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녀는 그동안 피교육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교재와 학습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파악하여 그 발전책으로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효과를 자아내게 하는 한편 연구하는 자세로 학생들이 언어교육에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3. 현장지도형

현지지도형은 태권도, 축구, 배구 등 스포츠 분야에서 종사하는 유형으로서 주로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실기를 지도하는 형태이다.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를 전혀 모르는 황무지 같은 곳에 한국인의 “氣와 精神”이 깃든 태권도를 보급시켜 그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건전한 사고를 형성하고 있으며, 체육교육, 축구, 배구의 경우도 특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없는 현지 학생들에게 여가선용, 사회체육을 이루기 위해 피약별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스리랑카에 파견된 박인수 단원은 태권도의 특성상 장소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Weweldeniya 지역을 비롯, 인근 마을에 태권도 강좌를 개설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정 많고 겁도 많은 나약한 시골어린이와 청년들에게 굳은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태권도의 동작을 마냥 신기한 듯 구경만하던 지역청소년들도 박인수 단원이 성의껏 지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수련생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덕분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지방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몇 십리 밖에서 무더위를 무릅쓰고 자전거를 타고 강좌에 참석하는 열의를 가진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다.

또, 한해수 단원은 “태권도에서 닦은 건강한 육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한다면 또는 스리랑카의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배운다면 우리 수련생들처럼 스리랑카의 앞날도 매우 희망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봉사단원들은 한국에서의 사범, 코치지도 경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훈련부족, 과학적인 운동시설 미비, 체육학의 이론 미정립 등 아직 초보단계에 벗어나고 있지 않는 스포츠분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 기초체력이 필요한지, 또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기를 겸비하여 지도하고 있다.

열대의 나라인 만큼 교실에서 수업하는 타 단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종일 피약벌아래서 그들과 함께 뛰고 땀굴고 하여야만 하는 단원들이지만 하루하루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이 향상될 때마다 구리빛으로 검게 탄 얼굴은 오히려 자랑스럽기만 하다.

4. 사무실형

사무실형은 주로 정부기관, 연구소, 사무실, 병원 등에서 활동하는 유형인데, 주로 간호·전산·시청각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한국의 일반 회사원들과 거의 동일하

게 오전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신의 활동 분야와 관련한 업무를 본 뒤 오후 4~5시를 전후하여 퇴근한다.

(1) 연구소 근무의 경우

필리핀의 송재진 단원은 마닐라에 있는 Flood & Nutri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식품가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FNRI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영양결핍, 식품의 가치, 식단 및 임상적인 영양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자국민들에게 양질의 영양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송재진 단원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무실에서 한국의 식품과 필리핀의 식품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 차이점을 토대로 효과적인 식품가공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다. 한국의 식품가공 기술만을 습득한 그녀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필리핀의 가공기술에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하였으나 사무실과 실험실을 동분서주한 결과 이제는 그들의 시설과 기술수준에 맞게 식품가공법을 이해하였으며 여기에도 선진한국의 식품가공 기술을 접목할 계획으로 있다.

(2) 병원근무의 경우

네팔 가족계획협회 산하 Baglung Branch에서 간호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희 단원은 네팔 단원들 중에서 가장 오지에서 열악한 환경과 싸우면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녀는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발 4,000m의 Baglung 고지에서 오전에는 일반의과를 담당하는 한편 오후에는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가족계획 상담 및 홍보, 그리고 피임시술을 하고 있다.

보건위생 및 산아제한 등 주민 마을 여인들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민들과의 높은 친화도를 바탕으로 가외로 여인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뜨게질, 봉제, 미용 등을 가르치고 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박애의 정신을 오지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그녀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근무시와 외출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임기연장 요구를 받기도 한다.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은 비록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는 다른 단원들에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봉사활동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5. 기타 생활사례

이상과 같이 “나눔과 섬김”의 숭고한 협력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단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현지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동남아 주변국가와 수리남,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지역에서 차기 단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생활사례를 중심으로 단원들이 어떻게 현지인들과 유대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네팔에 간호분야로 파견된 함영숙 단원은 네팔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 질수록 현지가정에 뜨거운 애정을 느끼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네팔인의 가정에서 만난 아버지, 어머니와 가족들이 친자식 이상으로 보살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그녀는 “네팔 엄마는 내가 밥을 한끼만 안해 먹어도 금방 알아차리고 음식을 갖다주기도 한다. 혹시 밤에 어디 나갔다가 늦을라치면 큰 거리까지 나와서 기다

리거나 몇 시에 어디까지 와 있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란히 나와서 기다리곤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사는 것 같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순회의료진료차 두달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나갔던 시골에서는 일주간만 못가도 그 다음 주에는 온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필리핀 Rizal College에서 잠사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최원규 단원은 학생들이 보통 자신을 “Sir Chioc”라고 부를 때면 반드시 “Kuya Choi”라고 부르도록 가르친다. 때론 꼬마들이 그냥 “Choi”라고 부르면 다음부터는 “Kuya Choi”로 부르도록 요구하는데 그대다다 현지인들이 “Tagalog(필리핀어) 가르치냐”면서 모두들 웃곤 한다. “Kuya”란 우리말로 “uncle”이란 뜻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거부감 없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들과의 거리감을 없애 준다고 그는 믿고 있다.

한편 필리핀 단원들은 지난해 “국제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달라카낭공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아키노대통령은 한국의 끈기와 근면을 높이 평가한 후 미국의 평화봉사단, 일본의 청년해외협력대에 결코 뒤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IV. 타국의 해외봉사활동 현황

1. 일본의 청년해외협력대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1964년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1965년부터 청년해외협력대(JOCV)를 발족하여 이후 25여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대양주 지역 약 45개국에 10,000명 이상을 파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것을 강화, 확대하고자 꾀하는 일본은 그 중심사업으로써 청년해외협력대를 통해 개발도상지역의 사람들과 일체가 되어 그 지역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대 사업은 불런티어리즘, 국민적 기반 위에서 대원활동을 지원하는 체제 및 공개모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원의 파견은 파견요청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협력대 사무국에서 연 2회(춘·추) 대원을 모집·선발한다. 지원자는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을 치르게 되며, 여기에서 합격하면 약 80일간의 파견전 훈련(연 3회 실시)을 받아야 하며, 최종 실사에 합격하면 정식대원으로써 각국에 파견된다.

파견된 대원은 현지 도착 후 1개월간 현지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후 각자의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2년간의 활동을 전개한다. 청년해외협력대의 예산은 경제협력비의 일부, 국제협력사업단예의 교부금으로 충당되는데, '91년의 경우 예산은 13,196백만엔으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막대하다.

파견직종은 일반적으로 농업과 의료, 토목분야를 비롯 일본어교사, 수공예, 미술 등 현재 약 15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같은 직종이라도 요청되어지는 기술, 봉사내용은 다르다. 파견직종의 큰 변화는 제1차 산업적인 직종(농림수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제2차 산업적 직종(가공, 보수조작, 토목건축)은 확대되며,

〈표 4〉 JOCV의 파견직종 현황

구 분	농림수산	가 공	보수조작	토목건축
파 견 중	20.5	3.4	15.5	7.2
누 계	26.7	3.3	19.4	10

구 분	보건위생	교육문화	스 포 츠	기 타
파 견 중	13.5	29	6.9	3.9
누 계	10.5	21.5	6.9	1.6

제3차 산업적 직종(보건위생, 교육문화, 스포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표 4 참조)

'91년의 경우 UNV 67명을 제외하고도 1,952명이 세계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누계가 10,000명을 넘어 10,738명이 봉사활동 경험이 있거나 봉사활동 중에 있다.

파견지역도 아시아가 29%, 중동 8.7%, 아프리카 27.1%, 중남미 24.2%, 대양주 11%로 전세계에 걸쳐 골고루 확산되고 있는바,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우수한 기술을 요청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협력대 사무국은 동 사업이 국민적 지지 위에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현직에 근무하는 자가 휴직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에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 협력대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현직참가 체제를 만들어 국가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일반기업 회사원 등이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임기 만료해서 귀국한 대원의 진로에 대해서 협력대 사무국은 진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진로상담에 응하고 있다. 휴직에서 참가한 대원은 원직장에 복귀하게 되며, 퇴직해서 참가한 대원

은 취직, 자영, 가사, 복(입)학, 전문가 등으로써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최근에는 대원들의 값진 경험과 어학력, 기술력, 현지사정, 인내력 등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OB회를 조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 국제연합 자원봉사단

국제연합 자원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은 1970년 12월 제25차 UN 총회의 결의로 1971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개발계획) 산하에 창설된 국제연합자원봉사단을 일컫는다. UN은 UN이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경제, 사회 개발계획에 각국 청년들의 건설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중간 수준의 기술원조 제공을 통하여 국가간 이해증진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UNV를 창설하였다.

UNV 사업은 크게 전문봉사단(UNV-Specialist)과 현장봉사단(DDS(Domestic Development Service) Field Worker)으로 구분된다. 전문봉사단은 UN기관이 직접 기술원조를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파견하는 전문가로서 대졸이나 직업학교출신으로 2년 이상의 관련분야의 경험자 및 영어나 파견대상국의 외국어(불어 등) 우수자이어야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현장봉사단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봉사단원대수혜국의 자조노력으로 실시하는 지역개발사업 현장에서 봉사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전문봉사단과 달리 학력, 경력 및 어학에 제한이 없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봉사기간은 공히 2년간씩이다.

전문봉사단은 '90년말 현재 115개국에서 2,055명이 활동 중이며 129개국 5,615명이 후

보자로 대기하고 있다. 전문가 파견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봉사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제경비가 선진국의 소득수준보다는 현저히 낮으나 저개발국 소득수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현장봉사단은 '90년말 현재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 30개국에 289명이 활동하고 있다. 봉사자의 연령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실제로 20~70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평균 연령은 38.5세로 나타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UNV사업 참여를 위해 '85년 UNV에 신탁기금 41만불을 기탁하였으며 '86년에 오만, 서사모아에 전문 봉사단원이 처음 파견된 이래 현재까지 몽골, 싸이프러스 등 5개국에 6명이 활동하고 있다.

3. 기 타

위에서 언급한 일본, UNV 이외에도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즉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파견된 적이 있는 Peace Corps(평화봉사단), 영국은 Voluntary Service Overseas, 독일은 Deutscher Entwidungs Dienst, 프랑스는 Association Francaise des Voluntaros du Progress, 캐나다는 Canadian University Service Overseas를 각각 파견 중에 있다.

1960년 7월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미국의 Peace Corps는 그 이듬해 최초로 17개국에 900여명을 파견하였으며, 현재 65개국에 5,786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액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Peace Corps 사업은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2년이다. 파견지역은 '89년 현재 아프리카

가 42.8%, 중남미 23.3%, 아시아·태평양 33.8%로 전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파견분야도 전문기술이 34%, 교육 30%, 농업이 16%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58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영국의 Voluntary Services Overseas는 '88년 현재 41개국에서 1,125명이 활동하고 있다. 20세~65세의 연령층은 아프리카가 50.7%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아시아, 아프리카는 40.3%이다. 이들의 주 파견분야는 교육분야가 41.9%로 Peace Corps의 경우와 같이 영어 등 교육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현지여건과 관련하여 의사 및 사회사업가등을 파견하고 있다.

프랑스의 『발전불런티어 협회』(AFVP)는 1963년 설립된 이래 '87년 현재 30개국에서 497명이 활동하고 있다. 21세~30세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AFVP는 파견기간이 2년이며, 지금까지 약 4,000명이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AFVP는 파견지역이 아프리카만이라고 할 정도로 97%의 인원을 아프리카에 파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인구, 식량, 보건 문제 등과 관련, 농업과 보건위생 분야의 봉사자를 절대다수 파견하고 있다.

이외 서독의 DED와 캐나다의 CUSO 역시 1960년대초에 여타 선진국과 함께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88년 현재 DED가 30개국에 910명을, CUSO가 40개국에 575명의 인원을 파견하고 있다.

V. 맺는말

오늘날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 집단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회복하고 보완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엮어 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 활동무대가 언어, 문화, 관습 등 제반 생활여건이 다른 이국일지라도 자발성, 상호성, 창조성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활동이라는 존엄한 가치는 어디서나 동일하며 한국 최초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해외봉사활동은 그 결실과 평가는 접어두고서라도 자못 숭고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눔과 섬김”의 숭고한 협력의념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그 정신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건한 육체 그리고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전문기술의 습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봉사자로서 내가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준다는 마음보다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내가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겸허한 자세가 요구된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진국의 국제협력기관들은 물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많은 양의 원조와 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제국의 노력은 기술협력을 통한 우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 속에서도 개도국의 진정한 자생적 노력에 의한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함으로써 경제, 문화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이라는 비난도 받아 왔다.

이에 청년봉사단은 선진국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나누고 섬겨야 할 대상인 현지주민들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높이며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거창한 슬로건보다 밝은 사회·열린사회를 지향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며, 그럴 때만이 그 숭고한 빛은 점점 밝게 퍼져 나갈 것이다.

봉사에 대한 일반관념이 널리 확산되지 못함이 시점에서 혹자는 해외봉사활동에 대하여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며, 혹자는 그 활동 주체인 단원들을 사회적 일탈자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발전 저변에 원조협력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한, 시작의 “때”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며, 남들이 하지 않기에 우리 단원들은 봉사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

올해 9월을 전후로 90년도에 파견된 1기 단원들이 귀국하여 그들의 귀중한 경험이 사회전반에 골고루 전파되어 봉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전전한 가치관, 국가관이 형성된다면 청년봉사단의 확대재생산은 필요불가결할 것이다.

아울러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진정으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청년, 그리고 미래의 청소년들이 있는 한 동 사업의 전망은 밝게 빛날 것이다.